

‘마약류범죄 최근 동향 및 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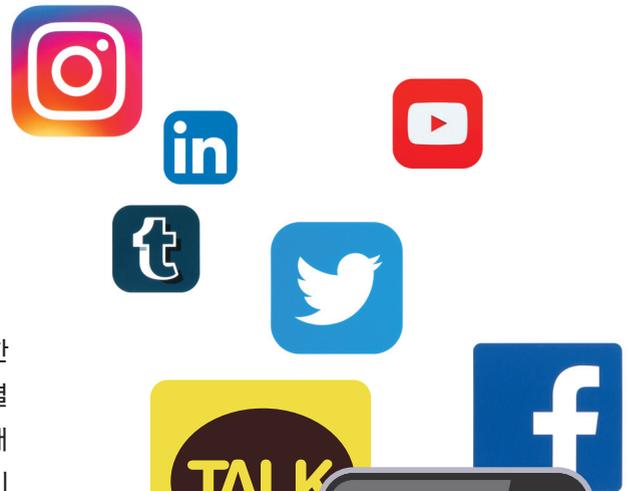
2015년, 인터넷 · SNS 이용 마약류사범 역대 최다



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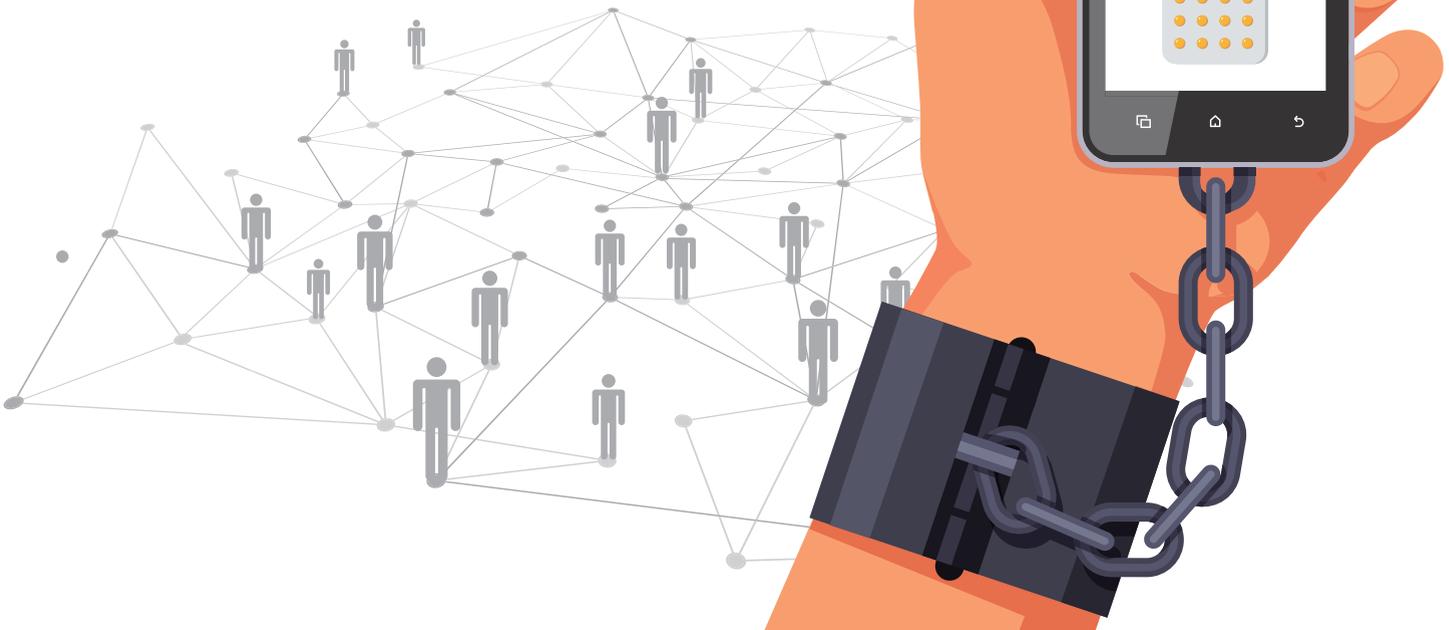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강력부(마약과)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8월 18일 국내외 마약류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5년 마약류범죄백서』를 발간했다. 2015년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1천916명으로 2014년(9천984명) 대비 19.4% 증가,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82.5kg으로 2014년(72.6kg) 대비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요 마약류 범죄 동향은 △인터넷 · 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 · 밀매 등 공급사범 및 매수사범 증가, △공급처인 밀수 국가 및 밀수 수단의 다변화, △기존 전력자 외에도, 여성 ·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등 취급 계층 다양화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사범 및 신종마약이 증가되고 있다.



1. 2015년 마약류범죄 동향

인터넷 등 이용 마약류 공급사범 및 매수사범 증가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이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①SNS 등 이용, 허브마약(5F-PB-22) 판매, 100여명 적발(서울지방경찰청), ②현직교사가 인터넷을 통해 GHB 등 신종마약 판매, 80여명 적발(부천원미서), ③인터넷 사이트 개설하여 알프라졸람 판매, 40여명 적발(경기지방경찰청), ④비트코인 이용 대마 밀수입, 블로그 등을 통해 대마 판매, 30여명 적발(창원지검) 등이다.

중국·동남아·멕시코 등 마약 공급루트 다변화

종전 중국 위주에서 최근 중국, 일본, 동남아(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인 필로폰이 밀반입되는 등 마약 공급루트가 다변화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3,097g 밀반입(2,048g 압수),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668.6g이 밀반입(전량 압수)되는 등 새로운 공급처로 부상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이 주요 밀수 수단으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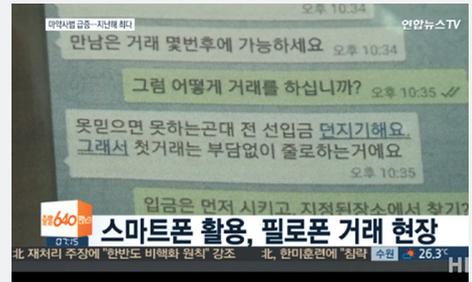
2015년 인터넷·SNS 등을 이용하고 국제우편물,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주요 마약 압수량의 19.3%에 해당하며, 국제우편 등이 주요 밀수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입 마약류 적발 현황: 2011년(134건 10.96kg) → 2012년(175건 12.52kg) → 2013년(202건, 13.23kg) → 2014년(268건, 28.64kg) → 2015년(262건, 15.97kg)

조선족·탈북자, 여성·청소년 등 취급 계층 다양화

필로폰 밀수입량은 46.5kg으로 '14년(42.1kg) 대비 10.5% 증가, 그 중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이 26.9kg으로 전체 외국산 필로폰 밀수입량의 57.8% 점유, 상당수는 조선족이 개입됐다. 대부분 조선족인 중국 국적 마약류사범의 '15년 단속인원은 314명으로 '14년(184명) 대비 70% 증가, 필로폰 압수량도 26.5kg으로 전년(20.8kg) 대비 274% 증가했다. 국내 거주 탈북자와 조선족이 연계된 필로폰 밀거래 사범 25명 단속, 13명 구속기소, 북한산 추정 필로폰 약 810.7g을 압수(서울중앙지검)했다.

'15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44개국 640명으로 전년(551명)대비 16.1% 증가, 중국인(314명)과 태국인(122명)이 다수 차지했으며,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128명으로 전년(102명) 대비 25.5% 증가, 마약류사범 여성 점유율도 19.1%로 전년(13.8%) 대비 5.3% 증가했다.



뉴스에 보도된 SNS를 활용한 마약류 거래현장과 현직교사 마약거래 적발

연도 마약류 사범(명)	
2007	10,649
2008	9,898
2009	11,875
2010	9,732
2011	9,174
2012	9,255
2013	9,764
2014	9,984
2015	11,916

자료 : 대검찰청

2. 향후 대책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거래 사범 엄단

검·경은 마약류 거래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편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 합동수사반 우수사례 : SNS(줄독, 텔레그램 등) 이용, 필로폰 판매사범 6명 검거(부산지검, 부산시경), 인터넷 다크웹사이트 이용 해시시 및 엑스터시 밀수입하여 강남, 이태원 등 유명클럽에서 판매한 프랑스인 검거(서울서부지검, 서울마포서), 필리핀 공항에서 해시시 밀반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한국인 검거(대구지검, 대구시경)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6년 내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법사이트를 즉각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 적극적으로 추적수사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작업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 차단 ('14. 6. ~'16. 8. 총 18명 단속, 8명 구속, 불법사이트 차단 202건, 불법게시글 삭제 1천377건)

광고행위 처벌 강력한 입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 포함 등)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 (※ 2016. 6. 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10인 발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

국내·국제 협업 강화하여 밀수 차단

1) 관세청과 협업하여 마약반입 원천 차단 노력

검·경이 처리한 밀수사건의 '출발지, 경유지, 밀수시간대' 등을 정밀 전수 분석하여 관세청에 제공('16. 5.)하고, 세관검색을 정교화 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대형밀수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특송화물센터를 준공하여 국제특송화물 검색을 더욱 강화, 검찰·세관 및 검·경 합동수사반을 통해 반입차단 및 범죄수사에 적극 협업했다.

2) 해외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 강화

대검찰청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및 한·중·마약대책회의를 통해 마약사범의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밀수 차단에 전력을 다했다.

대검찰청은 APICC 회원국과 공조하여 지난 1월~6월까지 중국·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밀수출한 우리 국적 사범 6명을 강제송환 완료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제26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으며, 제3차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정기총회 및 제3차 한·중 마약대책회의를 동시 개최 예정이다.

치료와 재활 및 교육·홍보 강화

청소년, 단순 투약자 등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재활교육, 치료의지 있는 중독자는 치료보호, 치료감호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2016년 마약류중독자 치료감호 등 적극 활용토록 전국 검찰청 지시하고 있다. 2016년 5월부터 매월 검찰수사관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재활 치료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검사가 직접 전국 초·중·고에서 '법교육 출장 강연' 실시했다. 지난 6월에는 네이버와 협업하여 마약범죄 예방 공익 배너광고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마약폐해 웹툰을 추가로 게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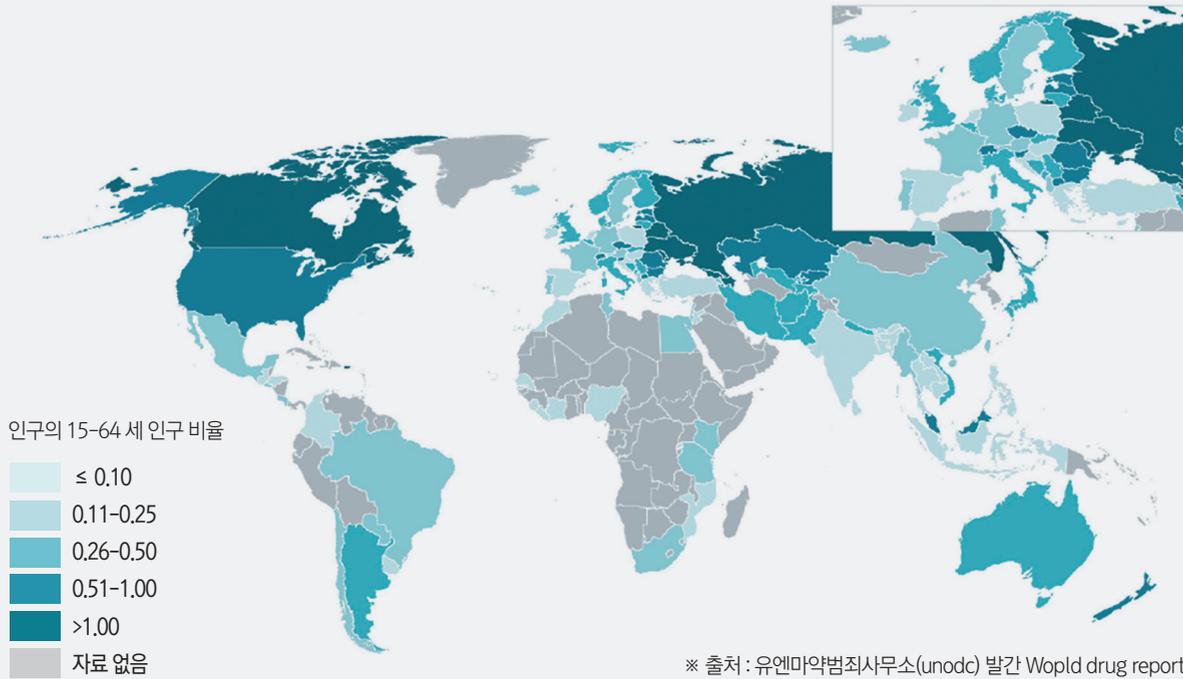
3.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15세~64세 인구 20명 중 1명이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난 4년간의 추세로 볼 때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천900만 명이 약물 복용장애를 겪고 있고 이들 가운데 1천20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고 있으며 이중 14%는 에이즈(HIV) 감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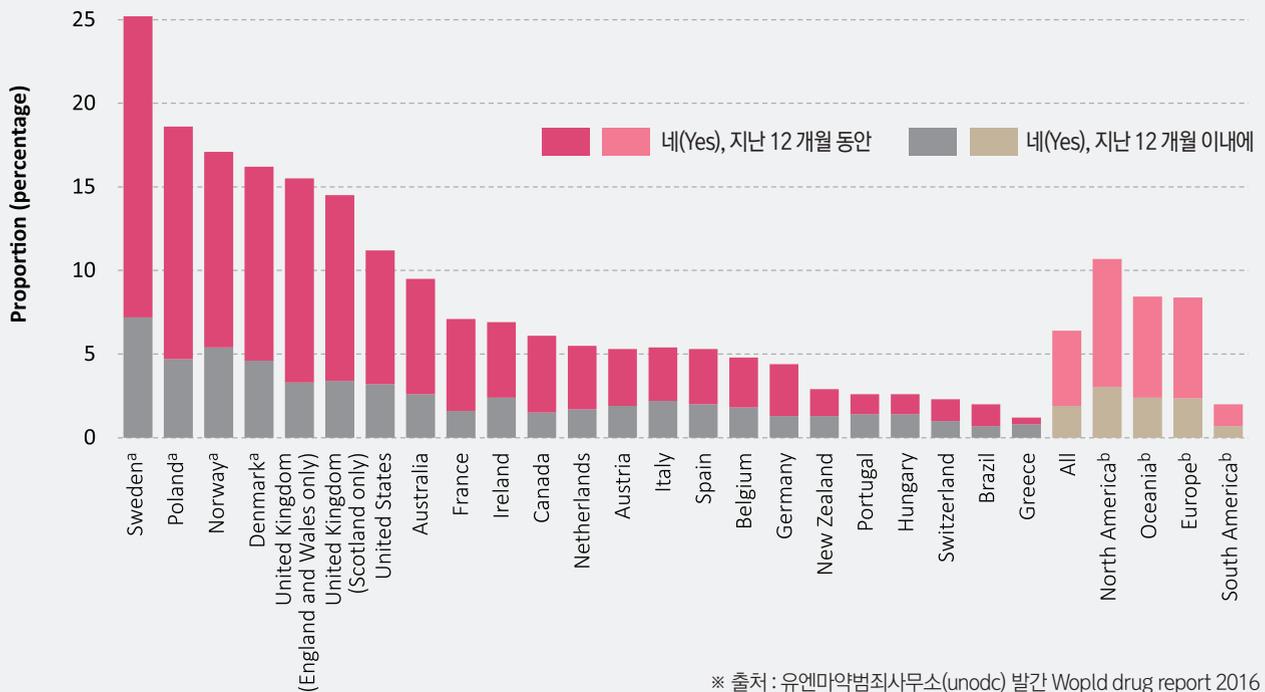
가장 널리 재배되는 마약류 식물은 대마로 2009년~2014년 사이 전 세계 129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귀비는 49개 이상의 국가에서 재배되었는데 대부분이 아시아와 미주 지역이다. 코카는 미주지역 7개 국가에서 대부분 재배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귀비 재배는 감소 추세지만 코카 재배는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20만7천400명이며, 전체 사망자수 가운데 약 1/3 내지 1/2 사이의 투약자가 아편유사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지역에서 마약류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 전 세계 마약류 관련 사망자수의 25%를 차지했다. 2004년 이래 미국에서 거의 50만 명이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2014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이중 61%가 처방된 아편유사제와 헤로인 복용자다. 2014년 50개 국가에서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참여한 전 세계 설문조사(6)에 따르면, 마약류 남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2000년 1.3%에서 2009년 4.9%로, 2013년 16.4%에서 2014년 25.3%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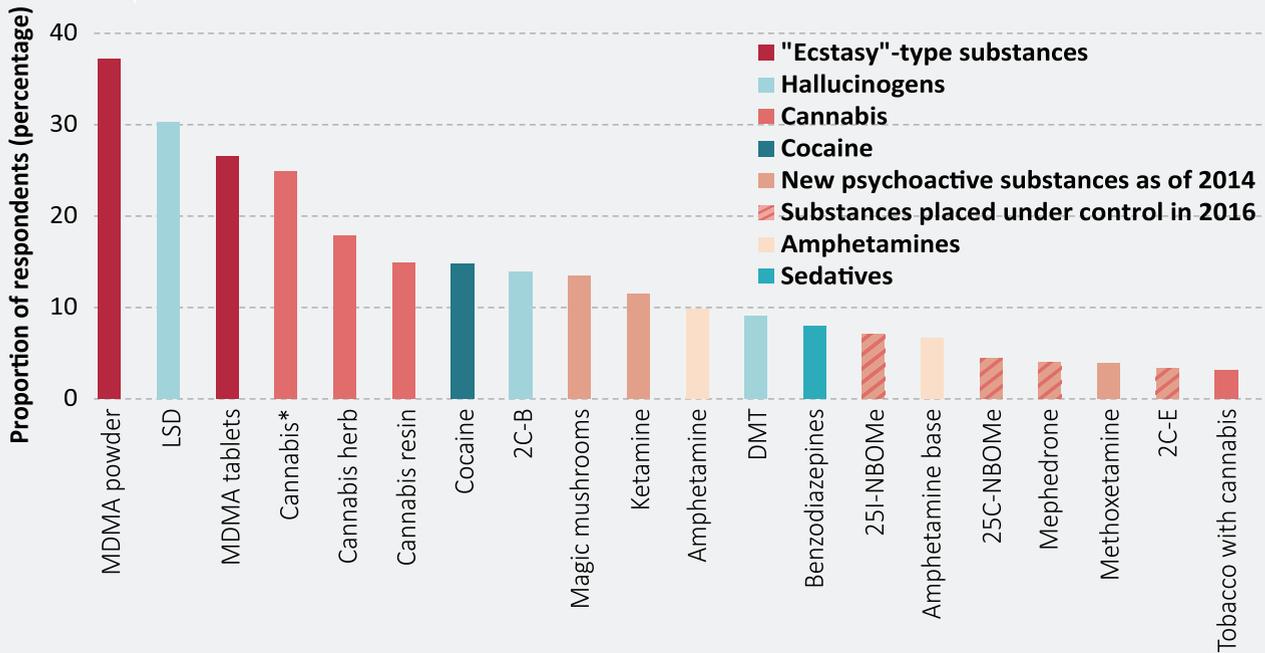
2014년 주사 마약류 남용률



2014년 다크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국가 및 지역별 응답자 비율



2014년 다크넷에서 구입한 마약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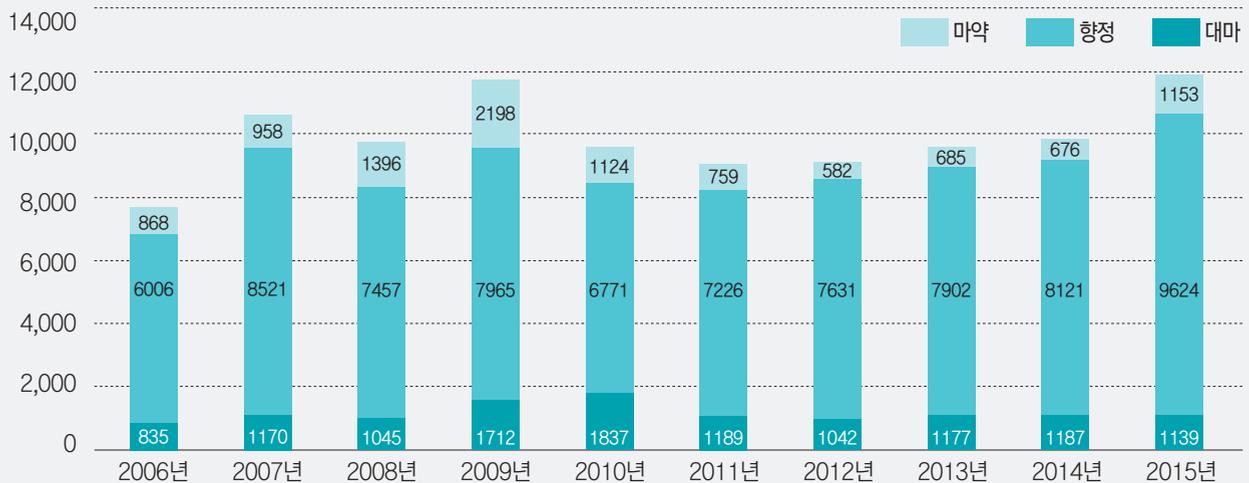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4. 국내 동향

1) 국내 마약류사범 동향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했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천명 선으로 감소했다. 2009년 다시 1만 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명 선 이하로 억제됐다. 2015년에는 1만1천916명이 단속돼 200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1만 명을 상회했다. 기존의 마약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 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들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2015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1천916명으로 전년(9,984명) 대비 19.4% 증가했다. 아울러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3천237명으로 전년(2천927명) 대비 10.6% 증가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공급선을 차단코자 공급사범 위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단위: 명, ※()는 증감률 %

연도별 마약류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9,174(-5.7)	9,255(0.9)	9,764(5.5)	9,984(2.3)	11,916(19.4)
마약	759(-32.5)	582(-23.3)	685(17.7)	676(-1.3)	1,153(70.6)
향정	7,226(6.7)	7,631(5.6)	7,902(3.6)	8,121(2.8)	9,624(18.5)
대마	1,189(-35.3)	1,042(-12.4)	1,177(13.0)	1,187(0.8)	1,139(-4.0)

2015년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총 82.5kg으로 전년대비 13.6%(전년도 72.6kg) 증가했다. 특히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56.6kg을 압수하여 전년대비 18.7%(전년도 47.7kg), 대마초는 24.0kg으로 전년대비 3.0%(전년도 23.3kg) 증가했다.

2) 국내 범죄유형별 내역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19.4% 증가하였고, 공급사범도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투약사범은 6천353명(전년도 5천224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53.3%(전년도 52.3%)를 점유했다.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3천237명(전년도 2천927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1%(전년도 29.3%)를 점유했다.

■ 범죄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명, ※()는 구성비 %

마약류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점유율)		10	339	2,888	903	6,353	668	755	11,916
		(0.1)	(2.8)	(24.2)	(7.6)	(53.3)	(5.6)	(6.4)	(100)
마약		0	12	33	853	143	44	68	1,153
향정		10	286	2,690	0	5,459	521	658	9,624
대마		0	41	165	50	751	103	29	1,139

